

지도자 및 교원_수기-16

학업중단 예방 사례 응모분야

지도자 및 교원

학생



사례명

위(Wee)로 스쿨에서 위로하며 성장하는 우리(We)

응모자

학교

OOOO고등학교

학년

-

성명

OOO

학업중단 위기관인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구적인 분위기에서 예체능을 진로 목표로 두고 있는 학생, 기초학력보장 대상 학생 및 심리·정서 위기 학생들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음.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참여 일자(기간)

24.03.02.~현재 (6개월간)

“위로(慰勞)가 필요한 때”

우리는 살면서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나 역시 고등학교 시절이 그랬다. 성적이 특출나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또 조용한 성격이었기에 학교에서는 소외감을 느꼈고, 망망대해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었다. 당시 나에게 위로가 된 것은 심리학이었다. 심리학 도서를 읽으면서 전문상담교사가 되겠다는 꿈이 생겼다. 덕분에 고등학교 시절을 잘 지낼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전문상담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때에 곁에서 위로하고 함께 견뎌주고 싶은 마음으로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다.

“우리(We)가 함께 만들어 가는 위(Wee)로 스쿨”

가. 배경: 최근 5년간 학교 부적응 학생 비율을 조사한 결과, 다른 학년에 비해 특히 1학년 학생들이 학기 초에 학교 부적응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을 파악했다.

< 최근 5년간 학년별 자퇴 학생 수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1학년	12	8	4	2	10
2학년	6	5	4	7	—
3학년	—	—	2	1	—

나. 조직 구성 및 위로 프로세스 및 학교 부적응 유형별 개입 방안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내용	위로가 필요한 학생들 선별	위로가 필요한 학생들 심층 상담	위로가 필요한 학생들 개인/그룹 멘토링 진행	기초 학력 보장 필요 학생 도움단기(방과 후 학교)	추수 상담 및 담당자들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 학교 내 대안 교실 (위(Wee)로 스쿨 운영) + 점심시간 마음 챙김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 참여 + 진로선택과정을 위한 학과 계열 탐색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예체능 진로 희망 학생의 경우 직업학교 위탁교육 안내	학생 관찰 및 지도, 학교 게시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위로가 되는 위로의 글(시)를 게시하여 관련 챌린지 기획 및 운영
담당자	1학년부 진학전략부	상담교사	상담교사	진학전략부 1학년부 진로상담부	1학년부 진학전략부 상담교사 국어과 교사

학교 부적응 호소 사유 중 하나로 기초 학력 보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기에, 진학전략부와 1학년부가 협력하여 1학년 학생 중 기초 학력 보장이 필요한 학생 10명을 선별하였다. 더불어 정서·행동 특성 검사 중 관심군 학생들 중에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학생들을 상담교사가 개인 및 그룹 멘토링을 진행하여 학교생활 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심층 파악하였고 10명 중 6명이 학교 부적응을 호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 학교 부적응 사유:** 낮은 학업 성취(1명), 대인관계 문제(2명), 예체능 진로 희망(2명), 대규모 조직 생활 어려움(1명) 각 사유에 맞는 적절한 개입을 하기 위해 상담교사는 학생들의 개인(4회기) 및 그룹 멘토링(5회기)을 진행하여 학습전략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습관 및 유형을 파악하였고 학생들의 개인에 맞는 학습법 및 학습 동기를 향상하기 위해 개인 멘토링을 병행하였다.

– **낮은 학업 성취 학생 개입 방안 :** 진학전략부에서 “도움닫기 프로그램(방과후 학교 10회기)”를 기획 및 운영하였다. 국어, 영어, 수학 과목 방과 후 수업 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보완하고 싶은 과목을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집중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학생 면담 중 경계선 지능인 학생을 발견하게 되어서, 00도교육지원청, 00대 특수교육과, 00대 특수교육연구소, 00대 00언어인지학습연구소가 주관하는 하반기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 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하였고 학생이 표준화된 지능 검사 및 경계선 지능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중에 있다. 이를 위해 학습 전문가와 담임교사, 상담교사가 소통 체계를 갖추어서 학생이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 **대인관계 문제 학생 개입 방안 :** 여학생들 특성상 무리를 지어서 친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특성으로 한 학급에서도 친한 무리들이 구성되어서, 무리 간 갈등이 있었다. 9명이 갈등 중이었는데 그 9명의 학생들 중 8명의 학생이 위클래스 개인 상담을 받는 중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갈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담임교사와 상담교사가 연합하여 “갈등 조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 예체능 진로 희망 학생 및 대규모 조직 생활 어려움 호소 학생 개입 방안: 학교 내 대안교실 (위(Wee)로 스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흥미, 적성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학생들과 기획 및 운영하였다. 특히 학교 내 대안 교실 이름 또한 학생들과 소통하여 위(Wee)클래스에 와서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위(Wee)로 스쿨”로 지었다. 더불어 점심시간에는 마음챙김 동아리를 병행하여서 학생들이 오감 자극에 집중하여 “지금-여기”에 집중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 위(Wee)로 스쿨 및 마음챙김 동아리 활동 및 성과 >

주제	참여 학생 특성	주요 활동	기대 효과
심리·정서 치유	대규모 조직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 심리·정서적 지원 필요 학생, 진로가 공예 분야인 학생	감정 인형 만들기	소규모 체험의 장에서 자연스럽게 집단 생활의 적응력을 높이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함.
진로 체험·계발	대규모 조직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 심리·정서적 지원 필요 학생, 진로가 제과제빵 분야인 학생	제과 제빵 체험	희망 진로 분야를 직접 체험하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실제 경험을 함.
공동체 체험	대규모 조직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	그릇 만들기	공동체 도예 체험을 하며 사회성이 증진되고 촉감에 집중하며 심리적 안정을 느낌.
진로 체험·계발	대규모 조직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 진로가 공예 분야인 학생	레진 아트 체험	레진 아트 공예 진로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짐.
마음 챙김	대규모 조직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 심리·정서적 지원 필요 학생	오감을 자극 마음 챙김 (싱잉볼 명상, 바디스캔, 아로마 명상, 컬러링, 먹기 명상, 호흡 명상)	지속적인 마음챙김 명상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안정을 찾는 습관을 형성함.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참여 동기가 매우 높았고 월요일 아침 시간부터 (8:30~10:00) 진행했음에도 지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였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 (우울,불안)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베이킹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강사님께서 해당 학생에게 보조 강사의 역할을 주었고 학생이 자신감을 얻고 더욱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결석도 찾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더불어 대학 진학을 꿈꾸지 않고 뜨개질에 관심 있는 학생이 학교 재학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부적응을 호소하였는데, 공방 대표님과 면담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을 확고히 하면서 재학 동기가 향상될 수 있었다. 더불어 학업중단 숙려제 매일 프로그램 참여 중인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여,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학교 적응력을 높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학업중단 숙려제 신청한 학생 3명의 학생이 전원 복교하는 사례가 있었다.

“위(Wee)로 스쿨에서 위로하며 성장하는 우리(We)”

위(Wee)로 스쿨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받을 수 있었다. 인생은 파도와 같다. 거친 파도처럼 힘든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고 잔잔한 조류같이 순탄한 때가 있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은 학생 시기에 거친 파도를 경험한 셈이다. 그 거친 파도를 없앨 순 없지만 그 파도를 느끼며 타면 된다. 그리고 나는 그저 곁에서 함께 그 파도를 맞고 파도 타는 법을 배워가는 역할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위(Wee)로 스쿨 체험을 통해 우리는 파도타기에 단련이 되어서 마음 근육이 길러지고 성장하였다. 하지만 또 거센 파도가 올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괜찮다. 다시 한번 위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함께 파도를 타고 더욱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